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공동제작투자 활용을 위한 정책연구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황길남, 김재웅

초 록

국내 영상콘텐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연적이며, 국내 시장 못지않게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규모를 늘리는 것은 한국영상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영상콘텐츠투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책이 미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콘텐츠기업 육성정책의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이 글로벌시장으로 확대되어가는 시기에,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해외국가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공동제작환경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기능수행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국 11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산적인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기금, 펀드)를 통한 국제공동제작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한다.

주제어 : 국제공동제작, 투자, 펀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I. 서론

현 인류의 급속도로 진전된 정보공유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의미는 전국규모의 중앙중심에서 특화된 지역중심으로 바뀌고, 대단위의 생산기업에서 소규모의 창의적인 기업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에서 요구되는 것은 개방성과 창의성이다. 개방적인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과 전략은 지자체에 머물러 있는 기준점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끌어올리고, 지자체의 창의적인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기준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는 데 있다.

2000년 이후 국제공동제작 건수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제작의 형태나 대상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다.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국외시장으로 확대하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국제공동제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해외마켓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10여 년 간의 정책과 기업혁신을 통하여 문화콘텐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8.8%로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45억 달러(2011년, 38억 달러 추정)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 및 수출규모¹⁾

* 본 논문은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의 2011년 하반기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초로 수정, 발전시킨 것임.

1)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업무보고』, 문화체육관광부, 2011.12.

한국영화시장의 국제공동제작 형태를 살펴보면 10년간 제작작품 215개, 투자 작품 81개, 외국영화유치 작품 42개, 기획작품 20개 순으로 358편이 국제공동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시장 확장과 더불어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국제경쟁력이 심화되어 가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지원책을 살펴보고, 해외사례와 국제공동제작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연도	투자	제작	기획	외국영화 유치
2000	1	6	0	0
2001	1	11	0	1
2002	1	12	0	4
2003	2	17	3	1
2004	10	15	2	1
2005	9	17	1	2
2006	7	15	2	6
2007	7	29	6	4
2008	11	19	3	9
2009	13	37	1	6
2010	19	37	2	8
합계	81	215	20	42

표 2. 국제공동제작(영화)의 협업 유형별 발생 건수 변동추이²⁾

2) 우혜경, 『공동제작 영화를 보는 서로 다른 시선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1.4.

II 본 론

1. 국제공동제작의 배경과 지원정책

국제 공동제작의 역사는 영화 역사의 초창기인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 공동제작의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다. 세계 1차 대전에 따른 결과로 각 나라들은 자국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동제작을 시작했다. 이러한 공동제작에 대한 프랑스의 노력은 자국영화산업 지원정책을 가시화하는 1946년 영화산업법령 제1조로 창설된 국립영화센터(CNC)를 개설하면서 동시에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 정책에는 공동제작영화지원 정책도 포함, 공동제작영화에 자국영화와 같은 혜택을 주기 시작하였고, 이후 각종 지원책 및 쿼터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책이 함께 발전되기 시작하였다.³⁾

한국은 영상산업육성을 위하여 1995년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법안개정을 추진하여 왔고, 2006년에는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안의 제2조에 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을 2개국(각20%), 3개국(각10%)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글로벌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1999년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지역문화산업 지원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기업의 입주공간지원과 제작시설지원, 국내외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등 기업 인큐베이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기구로 육성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는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유망지역에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탈 등을 집적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 문화산업 지원센터」 설립과 지방 문화산업단지 및 진흥지구 인프라 구축

3) 김혜준 외, 『국제공동제작에 관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1.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로써,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토대를 개발하는 방안으로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문화산업지원센터 또는 문화산업 집적시설에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들을 입주시켜 이를 지원하는 전략, 그리고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전략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육성은 1999년 2월에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문화산업단지과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어 추진하였으며, 2006년 2월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 그와 더불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지방 문화산업 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여 기업 입주공간과 제작시설 지원, 마케팅 및 홍보지원, 인력양성지원, 수출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수행 여건을 지역에 조성하여 지역 핵심인력 양성 및 문화 콘텐츠 산업 R&D 역량 강화, 지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10년 12월 현재 부산, 대구, 대전, 부천, 전주, 제주, 천안, 인천, 고양, 성남, 안동 등 11개 지역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심의 및 지정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지정시기)	중점 유치업종	위 치	면 적
부 산 (‘08.2.29)	영상, 게임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일원)	343,959㎡
대 구 (‘08.2.29)	게임, 모바일콘텐츠, 캐릭터, 뉴미디어콘텐츠	남구 대명동 (구 계명대 부지)	117,666㎡
대 전 (‘08.2.29)	첨단영상(영화),게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공원 일부)	338,570㎡
부 천 (‘08.2.29)	만화, 애니메이션	원미구 상동 (영상문화단지 일원)	600,263㎡
전 주	한 스타일, 영상	완산구 중노송동· 교동·풍	472,138㎡

('08.2.29)		남동·고사동 (정보영상벤처타운,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일원)	
천안 ('08.2.29)	문화디자인	문화동·대흥동·성황동·오룡동·원성동 일원 (천안역 인근)	306,782㎡
제주 ('08.2.29)	디지털영상, 모바일콘텐츠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	127,657㎡
인천 ('08.12.2)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남구 도화동 일원	263,164㎡
고양 ('08.12.2)	방송영상(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고양시 장항동 일원오피스 집적지구 (라페스타, 웨스턴동 주변지역)	664,710㎡
성남 ('10.2.17)	게임 산업 및 IPTV 산업	분당구 서현동 ~정자동 일원	1,246,826㎡
안동 ('10.1.21)	영상, 공예, 공연/전시산업	안동시 중구동 및 서구동 일원	512,581㎡

표 3. 국내 문화산업진흥지구 현황

그러나 문화산업진흥지구사업의 한계점은 인프라강화와 지역특화사업에 한정되어 콘텐츠개발 및 제작을 위한 투자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몫으로 전락하여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한계성은 투자, 제작, 유통 순환구조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글로벌진출을 위한 콘텐츠기획과 투자재원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 국내 중앙·지자체의 국제공동제작투자 사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지원 등을 위해 660억 원 규모의 2차 모태펀드 정기 출자 사업을 시행했다. 이 출자 사업을 통해 총 1,500억 규모의 콘텐츠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

다. 여기에는 총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중저예산 영화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영화 계정 펀드 및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 등 문화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400억 원 규모의 문화 계정 펀드가 포함된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여 국내 콘텐츠업체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11년 글로벌펀드1호와 ‘12년 글로벌펀드2호 투자는 중앙정부의 글로벌 문화콘텐츠펀드 규모를 확대시키고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구 분	구 분	투자분야	최대 출 자 비율	출자 예정액 (결성 예정액)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	문화계정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캐릭터, 공연예술, 게임, CG, 3D, 글로벌콘텐츠	50%	600억원 (1,400억 원) ※ 글로벌 펀드 (400억 출자) 포함
		일반(문화산업)	40%	
	영화계정	중·저예산 한국영화	60%	60억원 (100억원)

표 4. 문화부 모태펀드 출자 계획 (2011.5) 4)

이러한 중앙정부의 펀드조성 계획과 맞물려 서울시와 부산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투자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2007년 12월 창의성을 증진을 위한 290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조성한데 이어 2008년 200억원 규모의 「제2호 디지털콘텐츠펀드」를 조성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매년 200억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만들어 2011년까지 1,000억원 규모까지 펀드를 확대·운용할 계획이다. TV시리즈 애니메이션 「메타제트(Meta-Jets)」는 한국과 캐나다 소재 유력 배급사 쿠키자(Cookie Jar)의 공동투자 및 공동제작, 공동배급 프로젝트이다. 애니메이션과 병행하여 온라인 게임, 출판, 머천다이징 및 라이선싱 사업

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콘텐츠 펀드 조성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1.5.

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총제작비 약58.9억원의 「메타제트(Meta-Jets)」는 이미 쿠키자로부터 63%의 투자계약을 완료하여 일부 현금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고, 캐나다 방송국 텔레툰(Teletoon) 방영이 확정되어 있다. 이 배급사는 현재 SBS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수목드라마 「On Air」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 평균적으로 2년~2.5년의 투자 회수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1호 펀드를 통해 약 20편의 게임,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0억원 규모로 결성된 「2호 디지털콘텐츠펀드」는 애니메이션·캐릭터 분야에 50% 이상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 중에 있다.⁵⁾

부산시의 아시아영화펀드(Asian Cinema Fund, ACF)는 아시아 독립영화의 제작 활성화와 안정적인 제작환경의 조성을 위한 펀드로서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부터 후반작업,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아시아 영화를 발굴하여 범아시아 영화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총 9억원의 기금으로 조성된 아시아영화펀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독립영화 27편, 다큐멘터리 49편 총 76편의 작품을 지원해왔다. 2009년에는 제작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큐멘터리의 판권 구매 및 배급 지원 펀드를 신설하여 다큐멘터리의 상영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2010년 아시아영화펀드는 장편독립영화 인큐베이팅 8편, 후반작업 5편, 다큐멘터리 16편을 지원했다. 더불어 아시아문화기술투자(ACTI)는 지역기반의 투자펀드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참여로 수도권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권의 영화지원기구인 필름커미션 네트워크(Film Commission Network)를 통한 아시아영화 소통과 교류, 동남아시아 연합체인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국가들과 연계하기 위한 공동투자 및 공동제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와 고양시는 영화, CG·3D 분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기대하며 방송 영상 클러스터 강화

5)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2011년 까지 디지털콘텐츠펀드 1,000억 조성”, 서울특별시, 2008.3.30.

와 영상산업 제작지원 기능의 확장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각각 20억원씩을 부담한 총 200억원 규모의 영상전문펀드를 조성한다. 영상전문펀드는 영화와 CG3D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며,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더불어 지역 영상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투자조건을 고려할 방침이다. 고양시에 입주한 기업이 제작하고 경기도에서 일정비율 이상 로케이션 촬영하는 작품은 투자심사 시 우대한다. 영상전문펀드는 세계유일의 비무장지대인 DMZ 및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경기도 소재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영상물에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 2010년 6월에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하고, 8월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영화 관련 기업만 200여개가 있고, 그 중 주요 제작사들이 고양시에만 30여개 이상 군집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스튜디오와 세트·미술업체가 경기도 지역에 포진하고 있어, 경기도는 ‘대한민국 영상산업의 허브’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⁶⁾

앞에서 언급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작투자지원시스템은 영상콘텐츠산업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지역적인 한계와 예산의 분산지원으로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서울 및 수도권외의 국내기업비중이 80% 이상이고 국제공동제작이 가능한 기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검증되지 않는 프로젝트 투자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4 ~ 5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투자 및 유치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수익성에 관한 실적보고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공동투자 방안

유럽에서의 지역 펀드는 중앙정부와 지역 사이의 연계를 통하여 다각적인 투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자체의 영화 제작 투자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프랑스의 몇몇

6)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고양시 200억 원 규모 영상전문펀드 조성”, 경기도, 2010.5.24.

지자체들은 지역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에 기반한 경제 및 정치 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프랑스 국립영상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CNC)의 지원이 덧붙여져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지역 펀드는 1999년 800만 유로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에는 5,250만 유로를 기록, 프랑스 전체 영화 제작 재원 중 1.6%가 이 지역 펀드로부터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은 지역 펀드를 가지고 있는 「일 드 프랑스(Ile de France)」의 경우 2007년 한 해 동안 약 1,460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지역 펀드가 투자하는 영화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 내 촬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 인력 및 기술의 이용이다. 즉, 해당 지자체 내에서의 촬영 비율 및 지자체의 영화 인력과 관련 기술의 이용이 투자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펀드의 성장에는 중앙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프랑스 국립영상센터는 2004년, 17개 지자체와 「2유로를 위한 1유로 제도」라는 협약을 맺어 지역 펀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영화에 지원한 금액의 절반을 프랑스 국립영상센터가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실제로 이 제도가 신규 지자체들의 영화 제작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영국의 영국영화진흥위원회(UK Film Council, UKFC) 또한 지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영국의 각 지역들에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1,800만 파운드(약 36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1,800만 파운드의 재원은 국가 복권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출연되어 영국지역투자펀드(RIFE, Regional Investment Fund for England)의 이름으로 운용된다. 이 펀드는 영국의 9개 지역 스크린 에이전시들에게 배분되게 되는데, 이 펀드는 지역 내 영화 인력의 교육과 상영, 영화의 제작 지원에 사용된다. 지역에 따라 그 운용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역 스크린 에이전시들은 소규모로 제작되는 영화,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작 지원 부분을 별도로 두고 있다.⁷⁾

국비와 지방비의 공동투자방식을 신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

7) 정인선, 「지역의 영화 제작 투자 현황과 과제」,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Vol.81(2008, 10), pp.2-7.

태로 이루어 보았을 때 프랑스 국립영상센터와 영국영화진흥위원회의 제도는 국내 지자체들의 영화제작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해 보인다. 이들 재원은 영국과 프랑스 자국 내의 영화 산업에 한정되어 지원하지만, 아시아권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내의 국제공동제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투자 정책의 좋은 사례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2011년 모태펀드를 통해 1,236억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결성을 하고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프로젝트, 국내 제작사가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글로벌 펀드는 중저예산 영화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100억원 규모의 영화 계정 펀드 및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 등 문화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400억 원 규모의 문화 계정 펀드가 포함된다. 2011년 11월에 1,236억원으로 결성된 소빅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은 문화부 모태펀드 400억원과 국내 종편 채널사, 배급사, 전략투자자 그리고 국내기업이 20% 내외로 결성되었다. 본격적인 투자심의회는 2012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심의 및 투자를 시작한다. 소빅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 운용사에 따르면 글로벌콘텐츠 투자 기준은 다음의 4개의 항목 중에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⁸⁾ 또한 글로벌 펀드는 순제작비의 20%를 전제조건으로 투자를 하지만 국가 간 공동제작협정내용과 제작 비중에 따라 통합적으로 투자를 한다. 여기에서 글로벌펀드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투자형태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국내외 기업투자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펀드에 참여함으로써 일원화된 글로벌투자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중앙정부가 지역단위를 지원하게 되는 간접적인

8) 한국벤처투자(주), 『Korea Contents Fund Showcase, 사업설명회 자료집』, 2011.10.

- ① 국내제작사가 제작에 참여하여 수익지분 또는 제작지분을 보유하고, 주요 후반작업, 로케이션 서비스, 프로덕션 대행에 국내중소기업이 참여한 해외 프로젝트
- ② 순제작비의 일정비율 이상 해외 판매가 약정되었거나 실제 판매된 국내프로젝트(영화, 게임 20%, 공연10%, 드라마, 애니메이션 15%)
- ③ 국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인정되는 프로젝트, 영비법과 방송법 등에 따라 국산물로 인정되는 공동제작 프로젝트
- ④ 순제작비의 20% 이상 해외투자를 유치한 국내 프로젝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펀드를 통하여 해외진출의 기회가 제공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들은 무엇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더 고민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의 경쟁력 있는 소재와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강점들을 개발하고 검증받는 피칭순환구조를 면역화 하여야한다. 글로벌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피드백(Feedback)구조는 안정적인 투자재원과 해외시장개척이라는 전략적인 해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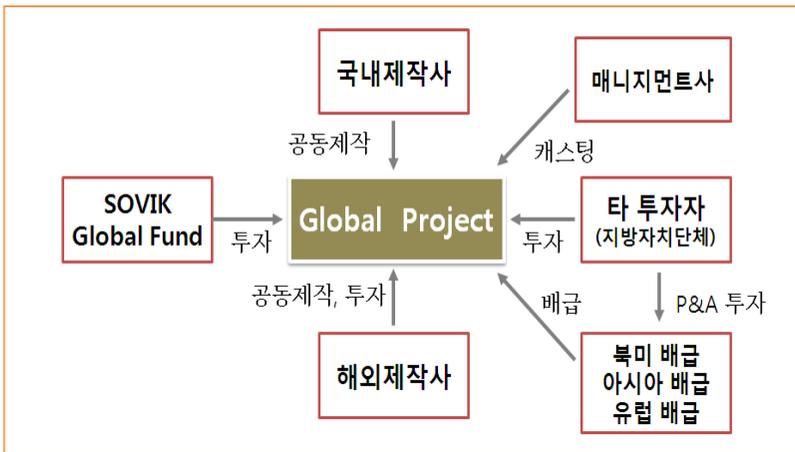


표 5. 글로벌 프로젝트 운용 전략(안)

III. 결론

국제화란 시간과 공간이동의 단축을 전제로 세계국가가 인적·물적 자원, 정보, 문화 등을 교류함으로써 상호 융합되고 의존성을 강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의 국제화는 국가사회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기본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콘텐츠산업은 10년 내외로 투자 중심보다는 인프라와 제작지원방식의 1차적이고 단조로운 전략에 머물러왔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 및 프로젝트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

을 유도하고 있어 전략이 없는 유치중심 위주로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는 콘텐츠강국을 강조하며 글로벌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앞에서 서술한 유럽권의 정책 중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투자·제작사업의 경우 국내에서도 검토하여 수용해야 할 당면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글로벌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글로벌 프로젝트는 국가 간 협력, 도시 간 협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투자기금과 펀드로 영화, 애니메이션, TV드라마 제작의 진흥을 위한 국제공동제작, 다양한 콘텐츠 제작지원, 광역권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해외시장진출, 해외작품 유치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정체결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시스템이 요구되어 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투자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내외투자자를 포함하여 펀드를 조성한다. 중앙기구에서 30% 투자와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방자치단체출연금에서 30% 그리고 국내외 제작사와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동출자방식으로 정책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추진단계에서는 공동투자 형태로, 펀드운영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법안 개정과 단계적인 실행방법론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통하여 국제공동투자활성화의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추진체계

- (법인설립 및 투자) 국제공동제작펀드1호 결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투자자 실무협의체 구성 및 법인설립
- (구성 및 운영) 투자 지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중앙·지역 단위별 사업설명회, 피칭(Pitching) 활동으로 투자 및 제작 활성화 전개
- (국제 협력) 투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공동제작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타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

체와 연계한 투자-제작지원 협정체결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가 함께하는 펀드운용은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에서 중·소형 프로젝트 발굴과 지역육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콘텐츠 발굴의 기회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일반적인 펀드와 다르게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해외 자매도시와 연계하여 투자 신뢰성과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공동제작 환경에 더욱더 직접적인 투자와 유치활동으로 국제적 관계개선이 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지원정책들이 획일적이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에 의한 투자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의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개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네트워크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연계과정은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다양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성 있는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혜준 외, 『국제공동제작에 관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1.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업무보고』, 문화체육관광부, 2011.12.
 박정수 외,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2010.
 우혜경, 『공동제작 영화를 보는 서로 다른 시선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1.4.
 한국벤처투자(주), 『Korea Contents Fund Showcase, 사업설명회 자료집』, 2011.10.
 정인선, 「지역의 영화 제작 투자 현황과 과제」,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Vol.81(2008, 10), pp.2-7.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고양시 200억 원 규모 영상전문펀드 조성”, 경기도, 2010.5.2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콘텐츠 펀드 조성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1.5.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2011년 까지 디지털콘텐츠펀드 1,000억 조성”, 서울특별시, 2008.3.30.

ABSTRACT**A Study on the Policy for International Co-Production
Investment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wang, Kil-Nam · Kim, Jae-Woong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domestic image content market, entering the global market is inevitable and expanding our market volume in foreign market as in domestic market is an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s the future of Korea image content industry. Suggestions and discussions on policy for investments on domestic image content should be carried out to resolve such situation. Specially, the reason why cooperative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in dire need is because cultural content industry support measures of central government is unsatisfactory and local government is not adequate enough to respond to the global environment because investment resourc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cultural content is insufficient.

This paper intends to study cases of policy promoted by domestic local government and support cases of foreign countries when domestic image content industry is expanding into the global market, and to search for solutions from integrated functional perspective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or international co-production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political connection in terms of central government strengthening assistance policy on dispersed policy of local government who operates 11 cultural industry promotion districts throughout the country. First,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expanded international co-production by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investment(fund).

Key Words : international co-production, investment, fund,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황길남
부산광역시 영상문화산업과 PM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Tel : 051-888-8106
arthwang65@gmail.com

김재웅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문화예술관
Tel : 02-820-5409
kunstoma@yahoo.co.kr

논문투고일 : 2012.02.01
심사종료일 : 2012.03.16
게재확정일 : 2012.03.20